

젊은 비평가들이 말하는 비평의 자리

《출판저널》은 요즘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비평가들에게 네가지 질문을 던졌다. 작금의 비평 풍토를 반성적 눈길로 되돌아보고 위기 상황을 타개할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고유의 비평 영역을 개척해온 네명의 비평가들은 《출판저널》의 우문에 성실히 답해줬다. 《출판저널》이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당신의 비평관, 혹은 비평적 신념은 무엇인가? 비평가의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문학의 위기와 함께 비평의 위기라는 실이 무성하다. 이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위기를 타파할 방법은 무엇인가?
3. 문학을 포함해 인문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비평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새롭게 요구되는 비평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비평가의 역할과 자세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4. 오늘날 우리 비평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국어’ 문학이라는 더 넓은 범주 고민해야

방민호 | 문학평론가

문학 논쟁이 요란한 반면 독자적인 단일 주제를 추구하는 비평집은 흔치 않은 것이 최근 한국비평의 현상이다. 비평이 문학작품이나 다른 비평에 대한 비판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비평은 한국문화와 문학이 처한 정신적 문제에 관해 깊이 생각하는 행위 그 자체가 돼야 한다. 한국에서 비평가 본연의 임무는 비평적 논쟁을 전개하는데 있지 않으며 그보다는 스스로 쌓은 사유의 축조물이 한국문화와 문학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과 작가는 이같은 작업을 위한, 중요하지만 하나의 매개인 것이다.

비평의 위기관 비평이 독자적 사유의 구축이라는 본연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채 논쟁에 매달리거나 잡지 메커니즘에 따라 부유하거나 읽고 쓰는 작업을 경시하는 가운데 점증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화니 인터넷이니 해도 결국 문자와 문장이 없는 세계란 정신적인 빈곤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며, 정신적 결핍 상태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는 없으리라는 절박한 인식일 것이다. 이 절박한 위기의식만이 비평가다운 품격과 가치를 지닌 비평을 창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어’ 문학을 둘러싼 상황 역시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다. 미·중·일 열강의 자국중심주의는 원하는 원치 않는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새로운 자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서로 다른 이해 관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통합, 그리고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의 수립이라는 절박한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 한국어와 ‘한국어’ 문학 역시 언어와 문학의 혼류 속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앞으로 한반도는 새롭게 통합될 것이며 만주나 연해주, 그리고 오사카와 로스앤젤레스가 새로운 차원에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한국어’ 문학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비평은 이같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문학의 가능성이 구비돼 있는지 탐색해야 한다. 남한과 남한 문학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한국어’ 문학이라는 더 넓은 범주 속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비평가들에게는 더 넓은 시야와 긴 안목이 필요하다.

최재서가 말했던 바, “비평의 아르바이트화”가 필요하다. 저마다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비평, 한국문화와 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을 수 있는, 비평적 언어의 숲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은 나 자신의 반성이 거니와 비평가들은 독자적이면서도 단일한 주제를 밀도 있게 추구하는 비평집을 가져야 할 때다.●

인문학과 대중문화 아우르는 총체적 시각 필요해

백지연 | 문학평론가

비평가의 일차적 임무는 텍스트를 음미하는 첫 독자가 되는 것이다. 텍스트를 향한 매혹과 열정 없이 비평이 존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평이 마지막에 가 닿는 곳은 작가도 텍스트도 아닌 비평가 자신의 내면이다. 삶 속에서 문학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비평가가 벌이는 치열한 지적 모험의 도정이야말로 비평의 진정한 역할이자 존재의미를 입증해준다.

소비문화의 시대에 문학도 다른 문화생산물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비평의 위기는 문학작품의 생산시스템에 얽혀 있는 정실비평, 권력비평의 폐해로부터 촉발된다. 비평이 출판자본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사실이기도 하다. 비평가 개인의 의지 차원으로 비평의 위기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 작품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적, 사회적 상황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문학비평은 문학이라는 한정된 영역이 아니라 인문학과 대중문화 담론을 두루 아우르는 총체적 시각을 필요로 할 것이다. 비평가 역시 전문기능인의 범주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비평의 위기론이 대두하지만 실제로 교육현실에서 비평의 역할은 매우 크다. 독창적 해석이라는 비평의 기능이야말로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문학비평의 상당수는 인문학적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다. 이는 문학비평을 전업으로 해서 생존할 수 없는 사회현실의 구조적 문제점과 연관돼 있다. 강단비평과 현장비평이 서로 존중하면서도 창의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평의 상업성과 집단적 권력시비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안이다. 이는 제도가 변화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비평가 자신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압박해오는 불공정한 여건을 경계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출판자본과의 유착에서 벗어나 파벌주의 극복해야

이명원 | 문학평론가

현단계 우리 비평의 문제점은 여전히 파벌주의다(파벌은 '흔히 '권력'이다). 문제는 이 문학적 파벌이 작품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독점하려는 경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출판자본과의 건강하지 못한 유착을 적극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비평가들이 자신의 문학적 '자존심'을 걸고 비평적 실천을 감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파벌이라고 규정하는 일부 문예지와 출판사들은 이런 실천에 대한 냉소를 공공연히 유포시키고 있다. 불구적 시스템은 불구적 판단기준인 '냉소주의'를 당연시하게 만들며, 비평가를 담론의 세련된 조립과 생산에 집중하는 '담론기술자'(신철하의 표현)로 전락시킨다.

그러나 시스템과 행위자의 이토록 불온한 유착은 최근 들어 일군의 '독립적 지식인'들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명인, 신철하, 권성우, 김정란, 구모룡 등의 중진비평가와 《비평과전망》 동인을 포함한 소장비평가들의 '비판적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변화된 시대적 조건 속에서 비평의 자기갱신 과정을 지켜보게 된 것이다. 물론 이들이 수행하는 '비판적 글쓰기'의 내용과 밀도의 편차는 매우 섬세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비평은 문학적 냉소주의자들이 흔히 보여주는 오만과 독선에 대한 강렬한 항체 역할을 넘어, 현단계 비평문학의 '창조적인 재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 비평계는 뚜렷한 하나의 전선이 성립되고 있는 셈이다. 문학적 냉소주의자들은 이 전선을 문학의 '자율성'과 '메타성'이라는 가짜대립으로 치환시키는 방식을 지겹도록 구사하는데, 물론 이것은 허구적 공식이다. 비평은 이미 그 출발 자체가 메타적 실천이며,

한 작품의 미적 자율성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메타적 조건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재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비평이 메타비판적 실천의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오만과 냉소로 뒤범벅된 문학적 냉소주의자들의 '자율성의 신화'가 해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에게 한 발 다가서는 쉬운 비평 절실해

이현식 | 문학평론가

1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비평은 문학작품에 대해 해석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비평은 이런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데서 자기 고유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문학작품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학작품은 작가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세계, 생활에 대해 미적으로 반응해 창조한 언어의 구성물이며,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정서적으로 느껴 위안을 삼거나 자기가 사는 세상에 대해 반성적 의식을 갖도록 하는 인간 이성의 창조물이다. 비평은 바로 이런 문학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시대의 정신적 좌표를 제시한다. 따라서 비평은 궁극적으로 생활과 세계, 시대에 대한 가치평가를 배제할 수 없다. 이때 가치평가의 기준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향이다. 그것을 억압하는 제도, 체계, 관습과 관념, 이데올로기 등과 비평은 맞설 줄 알아야 한다.

2 삶의 위기는 문학의 위기를 불러온다. 오늘날 문학의 위기는 삶의 위기(자본과 온갖 권력에 의한 생활 세계의 점거)에서 온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그렇지만 문학의 위기라고 불리는 모든 근거가 삶의 위기에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문학 내부에도 위기의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가장 궁극적인 요인이 대중과의 절연에 있다고 생각한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학은 점점 더 자신의 성체를 두텁게 쌓고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 들지 않는다. 비평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들만의 언어로 대화하고 자기들끼리 세상을 논한다. 왜 대중을 잃고 있는가를 되새겨 봐야 한다. 대중의 실감에 밀착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에 눈을 돌리는 작품, 그리고 그것을 추동시키는 활기찬 비평이 나와야 한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오늘날 비평가는 저널리스트가 돼야 한다.

자기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되, 글쓰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세계에 대한 통찰을 쉬운 문장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비평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안된다. 또한 세상에 대해 조금 더 열린 시각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만으로 비평을 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해석은 있되 평가가 없는 경우가 많다. 비평이 삶과 세상의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 또 하나, 건전한 비판과 논쟁을 충분히 받아들일 줄 아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인터넷은 이런 점에서 여전히 비평의 미래를 타진해볼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지켜봐야 할 대상이다.●